

기고



김창수 여주소방서 서장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곳이 어느 건물의 내부라면, 그 건물의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또는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보셨나요?”

비상구는 어느 장소를 가든 항상 볼 수 있는 문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문은 아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긴급 상황에 있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대피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작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안

타갑개도 출입문을 찾지 못해 숨진 사고였다. 이런 사건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문 앞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인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규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인 신고대상이며 불법행위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방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둘째, 소방시설 수신관, 제어반 등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셋째, 소방시설이 작동함에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넷째,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다섯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섯째,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

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방화문 훼손, 비상구 장애물 설치여부는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기를 바란다.

기고

생명을 위한 최고의 투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작년 어린이날 제주에서 주택 화재로 어린이 2명포함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주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조차 없었던 걸로 확인되었다.

화재경보기가 있었다면 초기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보면 2017년부터 기존 주택도 의무 적용 대상으로 법이 소급 적용된다.

새벽 시간대 잠이 든 일가족이 화재 연기 속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의 방안 천장에 설치하는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를 울려 방 안의 사람을 대피하도록 도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린다.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법이 바뀌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도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런 법적인 강제성 보다 중요한 건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다. 유명 커피 브랜드 아메리카노 한잔 값으로 화재발생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구입하는 건 최고의 투자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금재용/여주소방서봉산119안전센터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화재 예방,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어느 덧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다. 따뜻한 봄이지만 화재발생의 위험은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에서의 화재는 화재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커 각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 봄이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 계절이다.

성적향상, 풍년, 건강 등 여러 가지 위해 계획을 세울 여러분께 가족의 생명과 가정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추천한다.

짐작 하셨겠지만 그 계획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획이다.

어찌 보면 시설이란 말에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 올수 있었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불행은 막기 위해 가정집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흔히 보이는 소화기이다.

몇 년째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용어 자체를 생소해 하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을 자주 마주하곤 한다.

이에 누구에게는 아는 얘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경보음을 울려 화재사실을 알리는 기구이며, 단독경보라는 말은 외부전원공급이나 화재수신기와의 연동 없이 단독으로 경보한다는 뜻이다.

설치방법 또한 간단하다. 천장에 나사로 고정 장치를 부착하고 몸체를 연결하면 끝이다. 배터리 또한 10년 정도로 가까운 대형마트, 소

방기구 판매점, 인터넷 등에서 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 또한 2만원 전후로 구입이 가능하다.

단돈 3만원이면 최적의 가성비로 우리집이 소방서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뭐야? 우리 집에도 설치해야 하는 거야?” 등 막연한 생소함의 문제라던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감지기 하나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소화기 하나가 나의 보금자리를 지켜 줄 수 있다. 그에 대한 비용은 단돈 3만원!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재준/담양119안전센터소방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희망·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효호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